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중도통합민주당은 대통합에 목숨 걸어라



김형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현(주)넥스트 투자 고문)

“ 아무리 봐도 ‘중도통합민주당’은 2007년 대선 용이라는 생각이 들질 않는다. 누가 봐도 2008년 총선용이다. 특히 박 대표의 행동이 의심스럽다. ”

박상천 대표의 착각?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면 말이 다. 그런데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전직 당의

장·원내대표 출신들이 가세해 ‘대통합’이 이뤄진다면 하루아침에 지분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통합’이 펼쳐를 할게다.

게다가 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대선후보를 내면 5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큰 돈이다.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더구나 2007년 12월 대선이 끝나면, 100일여만인 2008년 4월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차라리 50억 정도 ‘중도통합민주당’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면 호남에서만큼은 제1당이 되지 않겠나? 결국 뻔한 계산이다. 중도통합민주당과의 합당은 ‘대통합’을 위한 ‘소통합’이 아닌, 모자란 의석수 채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50억 정도, 2008년 총선에서 재미도 보겠다는 ‘원초적인’ 정치공화일 뿐이다. 박대표로서는 50억도, 공천권도 포기해야 하는 ‘대통합’이나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다. 재발 진실이 아니길 바란다. 오해받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대통합’에 목숨거는 것이다.

혹, 박대표는 두 가지를 크게 착각한 것은 아닌지? 첫째는 다음 정권이 한나라당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착각이다.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전시장,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은 합해 70%를 웃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범여권 후

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지지율일 뿐이다. 12월까지는 6개월이나 남았다. 지금이라도 범여권 전체가 각자의 지분이나 기득권을 포기하고 ‘경쟁력 있는 범여권후보’ 만들기에 올인한다면 정권창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아-박은 결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다.

냉수 마시고 깨시길

둘째, 대선에서 저도 2008년 총선에서 호남만큼은 ‘중도통합민주당’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천만에다. 만약 ‘대통합’이나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범여권이 세 갈래 네 갈래로 찢겨져 대선을 치루면 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호남유권자들은 ‘무소속’을 선택할 것이다. 그간 호남지역의 재보선은 그 가능성을 확신시켜주고도 남는다.

얼마 전 만난 정경환 전 의원은 의미있는 말을 했다. “노무현이건 박상천이건 ‘뽕쟁정치’를 계속하면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호남은 무소속이 차지할 것이다.” 부디 냉수마시고 착각에서 깨시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탄력 붙은 J프로젝트 정부지원 서둘러라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천만여평에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개발 사업(J프로젝트)’의 사업 시행자가 될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전남도는 7일 “대주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최근 SP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SP 설립으로 J프로젝트 개발계획 수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SPC를 설립한 컨소시엄은 자본금 2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대주건설 등의 대주 컨소시엄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전남개발 컨소시엄, 에이스 회원권거래소 등의 썬카운터 컨소시엄 등 3개다. 이와 함께 485만평을 개발하게 될 정경전 컨소시엄도 오는 20일 SP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번 SPC 설립은 기업의 잇단 참여로 J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계획 수립이 구체화되고 국내외 투자유치도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각 컨소시엄별로 수립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6월 말까지 통합한 뒤 7월 중 정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2009년 초에는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SPC 설립으로 J프로젝트 사업추진이 가시화됐지만 투자자본금 추가 확보와 전담 법인 간의 원만한 교통정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가시화되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는 ‘F1(포플러 원) 특별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J프로젝트의 성공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 ‘중립의무 위반’ 결정 존중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해 일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고 참여정부평가포럼도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청와대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선출 정무직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부 수반이며 최고위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각종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듯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부작위가 엄청난 수확에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소모전이다. 정치권은 대선 정국을 맞아 격돌을 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 대통령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면 국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해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의 탄핵시비를 맞을 수 있다. 정치권도 과도한 정쟁을 접고 공정한 정쟁을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박정희 정권 시절, 대학 교수들은 시국사건과 관련해 문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다. 학생을 따로 만나 술을 사 먹이며 회유도 했다. 이른바 ‘어용교수’였다.

하지만 양심 있는 교수들은 인간존중과 민주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회구하며 은밀히 ‘성명서’ 한 장을 만들었다. 제목은 ‘우리의 교육지표’로,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교육지표’ 원고는 백낙청 전 서울대 교수가 쓰고, 연락은 성내운(작고) 전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 유신 독재가 극에 달했던 1978년 6월27일의 일이었다.

전남대에선 김두진·김정수·김현근·명노근(작고)·배영남(작고)·송기숙·안진오·이방기(작고)·이석연·이홍길·홍승기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정권의 성명서 중 ‘국민교육헌장이 교육 실패의 본보기이고, 행정부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민주교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는 부분을 본

제삼아 교수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사실왜곡 표현률 제작·배포) 혐의로 중앙정보부 전남지부 지하실로 연행됐다. 송기숙 교수는 구소속고, 다른 이들은 학교를 그만 뒤야 했다.

독재에 맞섰던 이들 11명의 교수들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 오는 27일 전남대 인문대 1호관 잔디밭에 세워진다고 한다. 조형물은 가로 3.6m·세로 2.7m·

높이 2.7m 크기로, 5권의 책과 떡임을 형상화했다. 책은 진실을 추구하는 대화와 광주의 5월을, 11개의 떡임을 새로운 교육의 싹을 틔운 교육 11명을 상징한다.

‘교육지표’ 사건은 한국 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가져오고, 5·18 민중항쟁 등 민주화의 불씨가 됐다

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29년이 지난 오늘에야 재조명하는 것은 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암울했던 시절, 고쳐줬던 우리 스승들을 자라매정한다는 점에서 반갑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교육지표’ 사건



기고

최용수



요즘에는 눈만 뜨면 곳곳에서 공짜로 준다든 선전을 접할 수 있다. 길을 걸다 보면 ‘핸드폰, 오늘만 공짜’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살 때도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먼저 할인해 준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 업체들은 처음 한 달의 매출이자가 공짜라고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광고하고 있다. 각박해져만 가던 세상 인심이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진 걸까.

이를 전문 용어로는 공짜마케팅(free marketing)이라 하는데 시장 개척 기업(marketing promotion)의 하나다. 공짜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미끼 상품’을 통해 소비자를 매

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앞지른 경우다. 이어리니하게도 어떤 유형에 속하던 공짜마케팅에서 진짜 공짜는 없다. 미끼 상품이나 무료 샘플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른 정상 상품의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료로 배포한 엑스플로러로부터 얻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무기로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얻고 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은 공짜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하경제에 잠복해 있던 대부분 업체들이 스스로 양지로 나와 당당히 광고를 내고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한

공짜는 결국 독이다

장으로 끌어들여 다른 상품들의 매출 신장을 노리는 전략이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한시적으로 대폭 할인하는 이벤트 또는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무료 샘플’을 제공해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화장품 판매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공짜 샘플을 주는 것이나 새로 개발된 맥주의 무료 시음권을 거리에서 배포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셋째, 상품이나 서비스 전체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인터넷 분야에서 후발 업체들이 선발업체와 경쟁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가장 유명한 예는 1995년 뒤늦게 인터넷시장에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당시 90%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할 ‘공짜’를 미끼로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처음 한 달 이자가 공짜라는 광고를 보고 한달 만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은 매우 적지만, 향후에는 대부분업체에서 대출받았다는 전력이 남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평가받는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재산과 신용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카드 포인트 선 할인이니 무이자 대출이니 하는 광고에만 혹해 자금 계획을 무시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백화점 세일이라고 해서 사치품을 충동 구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유익을 만큼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일이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딸 담임교사의 진심어린 편지에 신뢰감 생겨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의 담임 선생님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A4용지 앞뒤 면을 가득 채운 깨알 같은 글 속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걱정하는 학부모에 대한 배려와 아이를 향한 헌병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넘쳤다. 평소 아이에게서 들던 선생님의 생생생생 성격이 고스란히 배어날 정도로 자신의 소개와 학급 운영방침 등을 담았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에게 1년간 몸소 실천할 내용과 학부모 협조 사항 등이 예쁜 그림과 함께 아기자기

하게 꾸며져 있었다. 딸아이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선생님이 아이를 한명 한명씩 꼭 안아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화를 내실 때에도 정말 사랑스럽다는 듯이 표정은 짓지 않으신다고 선생님을 치켜세웠다.

요즘 초·중·고교의 ‘교사 성비 불균형’ 등이 요즘 말들이 많지만 이런 교사라면 남자 선생님이든, 여자 선생님이든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본다. 그 여선생님의 편지 한 통에 너무나 큰 신뢰가 가는 것은 아마도 선생님의 진심이 전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홍예진·광주시 동구 대인동

의료 칼럼

김형수



최근 건강 검진에 대한 관심 증가·평균 수명 연장·생활 습관의 서구화로 외래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환 중의 하나가 담석증이다.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은 담관을 통해 담낭(쓸개)에 저장 및 농축되어 있다가 지방 섭취시 총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 지방의 분해 및 흡수를 돕는다. 이러한 길목의 어느 곳에서도 비정상적인 담석성분으로 인해 담석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담석은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뉘어지며, 자연 경과에 따라 무증상 담석증·유증상 담석증·담석증의 합병증으로 나누어진다.

담낭 담석... 고지방·고칼로리 섭취 자제

담낭 결석에 대한 치료로는 담석 제거만을 목표로 하는 비수술적 치료와 담석뿐만 아니라 담낭 제거도 목표로 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경구용해요법과 체외자주파쇄석술이 있으며 결석의 크

기나 0.5~1.0cm 이하인 폴레스테롤성이고, 비만하지 않은 환자로서 증상이 경한 환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개복을 통한 담낭 절제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이 있다. 개복 담낭절제술은 위상복부의 늑골 하부에 비스듬히 절개를 가하여 수술을 시행하며,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복부에 3~4곳에 1~2cm 정도의 투관침을 넣고 수술을 시행한다.

담낭 절제술을 시행 받게 되면, 간에서 형성되는 담즙은 담관의 저장 및 농축 장소인 담낭을 거치지 않고 십이지장으로 분비된다. 급성 담낭염은 유증상 담낭결석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위상복부의 통증으로 우측 어깨부나 뒷 배부에 전파되는 방사통을 호소한다. 이러한 증상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슴앓이 또는 속앓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 외에 발열·오한·구토 등을 호소한다. <동아병원 외과원장>

색소성 담석은 담관계의 세균 및 기생충(간충충증)감염, 간경변증과 관련이 있으며, 폴레스테롤 담석은 비만·고지혈증·당뇨·경구피임약·고연령·여성·출산력 등과 관련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른 동양의 나라들과 같이 색소성 담석이 많고, 담낭 담석이 많았으나, 최근 고지방식의 식생활 습관, 고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증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폴레스테롤 성분의 담낭 담석이 증가하는 추세다.

무증상 담낭결석증은 담낭 내에 결석이 있음에도 증상의 발현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담낭 결석 환자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 중 10%에서는 5년 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증상의 담낭 결석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며, 다만, 결석의 크기가 크다면, 담석과 함께 움직여 보인다면, 국소적 또는 전반적인 담낭 벽이 두꺼워져 있는 등 담낭암의 위험인자와 관련

된 소견이 보이는 경우는 수술적인 담낭 절제를 해야한다.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 담낭결석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위상복부 및 심외부의 둔통(불편감-오로 결석시 발생하는 극심한 산통과는 다르다)과 소화 불량·헛배 부름·찾은 트림·오심 및 식욕 부진을 호소하기도 한다.

담낭결석의 진단은 대부분 초음파촬영에 의존한다. 담낭 결석에 대한 치료로는 담석 제거만을 목표로 하는 비수술적 치료와 담석뿐만 아니라 담낭 제거도 목표로 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경구용해요법과 체외자주파쇄석술이 있으며 결석의 크

재활용 위해 종이컵 반드시 분리 수거대 넣어라

지하철역·대형 건물에 가면 커피 자동판매기가 많이 설치돼 있다. 자판기 옆에는 종이컵 회수를 위해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놓았다. 하지만 적잖은 남성들은 커피를 마신 뒤 담배꽂이나 휴지 등 오물을 담아 쓰레기통에 방치, 재활용을 어렵게 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 안에 아주 역겨운 가래침까지 뱉어서 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수거한 종이컵의 경우 100% 펄프로 구성돼 있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종이컵을 물에 풀어서 섬유질을 분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종이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재활용 화강지와 미용티슈, 쿠키쿠키의 상자, 와이셔츠 받침판, 화장실갑, 담배갑,뚜껑 등 도화지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염물이 많이 낀 종이컵은 재활용 대신 소각장의 재료 변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원 재활용을 위해 종이컵은 사용 후 반드시 분리 수거대에 넣으면 좋겠다. ▲김민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URL.